

8/17/25

설교 제목: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고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예레미야 47 장 1-7 절

(렘 47:1)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렘 47: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렘 47:3)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렘 47:4)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 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렘 47:5)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렘 47:6) 오호라 여호와와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실지어다

(렘 47:7)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6 장에서 51 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상이 애굽이고, 그 다음이 블레셋입니다.

본장은 블레셋에 주신 심판 예언으로, 애굽 왕 바로가 가사를 침략하기 전에 주신 예언입니다.

(렘 47:1)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서 눈에 가시같이 놓던 블레셋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을 내려오게 하여 블레셋 온 땅을 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렘 47: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렘 47:3)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북쪽에서 불어난 물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 성읍과 주민들을 휩쓸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앗수르를 도와 북부 지방으로 원정을 나가는 애굽 군대의 위용을 나일 강의 범람에 비유한 것처럼 블레셋을 침략하는 군대를 물결치는 시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주민들은 적의 위세에 놀려 망연자실해 합니다.

애굽을 침략하는 적도 블레셋을 몰살하는 적도 모두 북쪽에서 온다고 하십니다.

애굽이나 블레셋에서 북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은 BC 609 남쪽의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애굽 바로노고 왕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에 넘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애굽의 공격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에게 멸절 당했습니다.

BC 604 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러 가는 중 블레셋을 정복한 것입니다.

BC 609 년 바벨론으로 인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앗수르는 애굽 바로노고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앗수르 왕의 청을 받은 바로노고는 앗수르를 돕기 위해 원정을 감행합니다.

이 원정에서 바로노고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며 바벨론을 도와 전투에 가담한 유다 요아스 왕을 므깃도에서 전사시키고 유다 군대를 패배시킨 후 블레셋 가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BC 605 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예상을 뒤엎고 바벨론이 애굽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어 BC 604 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 다시 애굽을 치러가면서 블레셋을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명합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던 블레셋을 도울 자들을 다 끊으실 것입니다.

(렘 47:4)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 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렘 47:5)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시돈과 두로는 블레셋과 동맹국으로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바벨론에 맞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은 이들의 도움을 기대하겠지만 이는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중 도와 줄 자들을 모두 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돌은 블레셋의 출발지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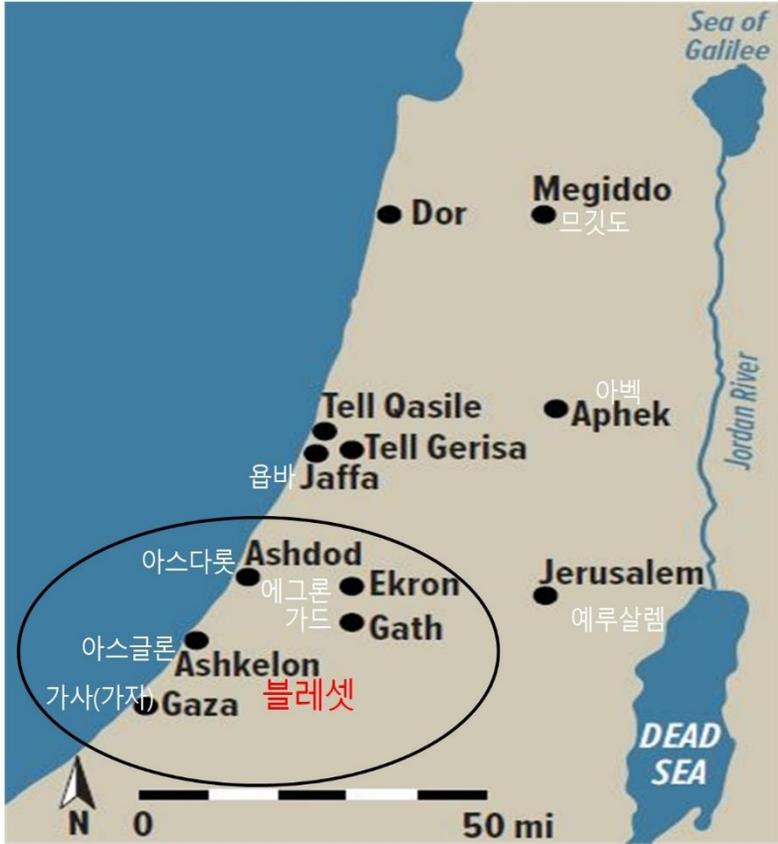
블레셋에는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다섯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중 가사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애굽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면해 있어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스글론은 가사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스글론도 지중해 연약 성읍이었습니다.



'잠잠하게 되었나니'는 죽음의 침묵을 말합니다.

가사와 아스글론을 포함해 해안 평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기에 성읍이 애통해 합니다.

심판 날이 오면 가사는 죽음을 애도하며 삭발을 할 것이고, 아스글론은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어 정적만 감돌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몸을 베며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남는 것은 죽음의 슬픔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블레셋 사람의 입장이 되어 탄식합니다.

(렘 47:6)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실지어다

(렘 47:7)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 칼’은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칼’ 바벨론 군대가 쉬지도 않고 블레셋이 멸절하기까지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이제 그만 멈춰주길 바라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칼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심판을 다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도 블레셋을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애굽에게 주어진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별 수 없는 작은 힘으로 이웃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못되게 구는 블레셋에게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을 내려오게 해 멸절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날, 심판의 날, 블레셋은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알량한 재물 권력 명예 어떤 것도 그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날, 블레셋에게 닥쳤던 심판의 날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재물 권력 명예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날, 하나님의 칼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개하고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메시지가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 그분 안에 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